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2023년 5월 30일 | 선임조사역(G2) 황수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² 	인구 35.3백만명 (2022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러시아, 친중국 서방과 협력 확대 
GDP 804억 달러 (2022 ^e) 	1인당 GDP 2,280달러 (2022 ^e) 	통화단위 Som 	환율(U\$기준) 11,050 (2022) 

-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구소련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금, 면화,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여 동자원을 이용한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며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13억 달러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여 사회, 보건의료 등에 지원하였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OECD,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2021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80%에 달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 외환 자유화, 부패 척결 등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 및 중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과의 경제협력, WTO 가입 추진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29 수교 (북한과는 1992. 2. 7)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8),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법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9), 군사비밀보호협정('12), 관광협력협정('13)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1,704	1,879	2,184	자동차 부품, 자동차, 원동기·펌프, 합성수지
수입	18	22	28	펄프, 면직물, 면사, 한약재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55건, 856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e
경제성장률	5.9	6.0	2.0	7.4	5.7
소비자물가상승률	17.5	14.5	12.9	10.8	11.4
재정수지/GDP	2.0	-0.3	-3.3	-4.6	-3.9

자료: IMF

2022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5.7% 기록 추정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 성장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 서비스업 호조, 기저 효과 등으로 7.4% 성장을 기록하였음. 2022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주요 교역국인 중국 및 러시아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저조한 5.7%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지속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 정부지출 증가 등이 이를 상쇄하여 2022년 대비 약간 낮아진 5%대 초반의 성장이 예상됨(IMF).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은 중앙아시아에서 타지키스탄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성장률이 5.4%에 달함(타지키스탄 7.4%, 카자흐스탄 2.7%, 키르기즈 2.0%, 투르크메니스탄 0.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외환자유화 이후 6년 연속 두 자릿수 기록

- 2017년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 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8년 17.5%에 달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및 경제 봉쇄조치 등으로 경기가 둔화된 결과 2020년 12.9%, 2021년 10.8%로 낮아졌음. 2022년에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11.4%로 상승하여 6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2022년 3월 정책금리를 14%에서 17%로 인상한 이후 6월과 7월에는 각각 14% 및 15%로 인하하고, 2023년 3월에도 14%로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하였음. 2023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거의 12%에 달할 전망이다(IMF).

코로나19 대응 및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인하 등으로 2020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3.3%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21년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6%로 확대되었음.
- 2022년에는 조세행정 효율화 및 정부의 세수증대 노력 등의 결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동 비율은 2023년에는 -2.9%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3,539	-3,371	-3,028	-4,895	-628
경상수지/GDP	-6.8	-5.6	-5.0	-7.0	-0.8
상 품 수 지	-6,867	-7,291	-6,216	-8,767	-11,199
상 품 수 출	11,386	13,899	12,832	14,142	17,110
상 품 수 입	18,252	21,190	19,048	22,909	28,309
외 환 보 유 액	12,079	12,475	14,304	13,078	11,645
총 외 채	18,383	25,967	35,916	42,290	46,586
총외채잔액/GDP	34.8	43.1	59.6	60.8	57.9
D.S.R.	12.7	13.5	20.7	30.7	26.2

자료: IMF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2018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우즈베키스탄의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함. 2021년 경상수지는 -48.9억 달러의 적자로, 이중 상품수지 적자가 -87.7억 달러였음. 2022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가 -11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이전소득수지 흑자(121.6억 달러)로 상쇄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6.3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음.
- 상품수지 적자는 투자, 소비 증가에 따른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함. 2022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액 증가율이 수출액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상품수지가 -11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경상수지 적자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2023년에도 적자 규모가 -32.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IMF).
- 한편,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개발 등으로 서비스수지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반면 이전소득수지는 해외이주 노동자 송금 등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12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87.2% 감소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음.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 중국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금, 면사, 구리 등 1차상품 위주

- 우즈베키스탄의 2022년 주요 수출상대국은 러시아(24.3%), 중국(16.4%), 튀르키예(13.6%) 등이며, 주요 수입상대국은 중국(22.4%), 러시아(21.4%), 카자흐스탄(11.4%), 한국(7.7%) 등임.
- 2022년 상품 교역액은 총 45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함. 이중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86.5억 달러(19.0%), 중국과의 교역액이 80.7억 달러(17.8%)로 중국과 러시아가 상품 교역액의 36.8%를 차지함.
- 2022년 주요 수출상품은 금 등 귀금속(28.2%), 면사 및 원면(10.5%), 구리류(7.3%) 등이며 주요 수입상품은 보일러 및 기계류(17.4%), 일반차량(9.4%), 철강제품(7.1%) 등임.

외채상환능력

최근 외채규모 지속 증가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다소 악화

- 우즈베키스탄의 외채지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공공부문 투자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차입 증가 등으로 최근 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총외채잔액은 2018년 183.8억 달러에서 2022년 465.9억 달러로 최근 4년 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18년 106.0%에서 2021년 222.6%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수출 증가로 동 비율이 178.2%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8년 12.7%에서 2021년 30.7%로 크게 높아졌고, 2022년에는 총수출 증가로 26.2%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IMF 및 세계은행 권고 상한인 18~20%를 넘는 수준임.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도 단기외채 차입의 증가로 인해 2018년 7.4%에서 2019년 27.7%로 급등한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8.6%, 38.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외 지급능력이 악화되는 양상임.

금 보유액의 증가로 총대외준비자산은 최근 2년 연속 증가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2021년 말 130.8억 달러에서 2022년 말 116.5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금 보유액의 증가로 총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gross) 규모는 2020년 말 349.0억 달러에서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각각 351.4억 달러 및 358.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은 2022년 말 기준 세계 13위 수준으로, 2021년 말 209.5억 달러에서 2022년 말 230.6억 달러로 10.1% 증가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나보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Muruntau 금광 채굴 등에 힘입어 2021년 기준 세계 11위 금 생산국이자 세계 10위의 금 수출국임.

[표 1]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 및 보유규모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 보유액(백만 달러)	14,641	16,329	20,217	20,950	23,065
금 보유량(백만 온스)	11.4	10.8	10.7	11.6	12.7

자료: IMF

구조적취약성

제조업 발달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섬유산업 등 일부 산업에 편중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천연가스와 1차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산업구조에서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GDP의 25.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주변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제조업은 섬유, 식품 가공, 자동차 등이 주축이며, 최근 정부의 금속산업 발전정책에 따라 외국기업 투자 유치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금속제품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기계, 화학 등 여타 제조업 분야의 생산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여 산업구조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 2022년 중 제조업의 부문별 비중은 금속가공(27.6%), 섬유제품(17.4%), 식료품(16.1%), 자동차(11.1%) 등이며,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이 필요함.

[표 2]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별 GDP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업	29.7	26.6	26.8	26.5	25.1
제조업	30.5	33.8	33.4	33.9	33.4
서비스업	39.8	39.6	39.7	39.6	41.5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국외 이주 근로자 송금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국내 일자리 부족 등으로 다수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외국에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음(2020년 기준 약 17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7.3%). 우즈베키스탄 국외 이주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2022년에 135억 달러로 GDP의 16.8%를 차지하여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규모 및 그에 따른 환율 변동, 국내 민간소비 등 국가경제가 국외 이주 근로자 송금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국외 이주 근로자 송금액은 증가 추세이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년 대비 무려 46.8% 증가하였음(92.0억 달러→135억 달러). 한편,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지속 등으로 러시아 이주 근로자로부터의 송금액은 감소할 전망이다(2022년 러시아 비중 55%).
- 202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해외 이주 근로자의 송금액이 전년 대비 7.4% 감소한 1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EIU).

[표 3] 우즈베키스탄 해외 근로자 송금액 추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근로자 송금액(억 달러)	76.1	85.5	69.8	92.0	135.0
GDP 대비 비중(%)	14.4	14.2	11.6	13.2	16.8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성장잠재력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구와 높은 인구증가율 등 풍부한 인적자원 보유

-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인구증가율 등으로 노동력이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2022년 말 인구는 2015년 말(3,102만 명) 대비 13.7%(425만 명) 증가한 3,527만 명으로 추정됨.
* 중앙아시아 국가별 인구(만 명, 2022년): 카자흐스탄 1,974, 타지키스탄 984, 키르기즈 680, 투르크메니스탄 624
- 인구증가율도 높은 편으로 2015~21년 기간에 전 세계 인구는 73.8억 명에서 78.9억 명으로 6.9% 증가했으나,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3,102만 명에서 3,456만 명으로 11.4% 증가하였음.
- 2021년 말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5% 수준으로 세계 평균과 비슷하나,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30%(세계 평균 25%),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0%(세계 평균 10.0%)로 인구의 절반이 30세 이하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함.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과 금, 우라늄 등 광물자원이 풍부

- British Petroleum 자료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말 기준 천연가스 0.8조 m³ 및 원유 6억 배럴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 2021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509억 m³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28.9%를 차지함.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출발한 가스 파이프라인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 가스관 개통(2009.12월)으로 2012년부터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개시되었음.
- 천연가스 수출액은 2019년 23.0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에너지 국제수요의 위축으로 2020년 4.8억 달러로 급감한 뒤 2021년 7.2억 달러, 2022년 9.3억 달러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상대국별 비중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91.7%를 차지하였으며, 러시아로의 수출은 2.1%에 그침.
-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금, 구리, 우라늄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특히 금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으로 생산량이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22년 금 수출액은 41.1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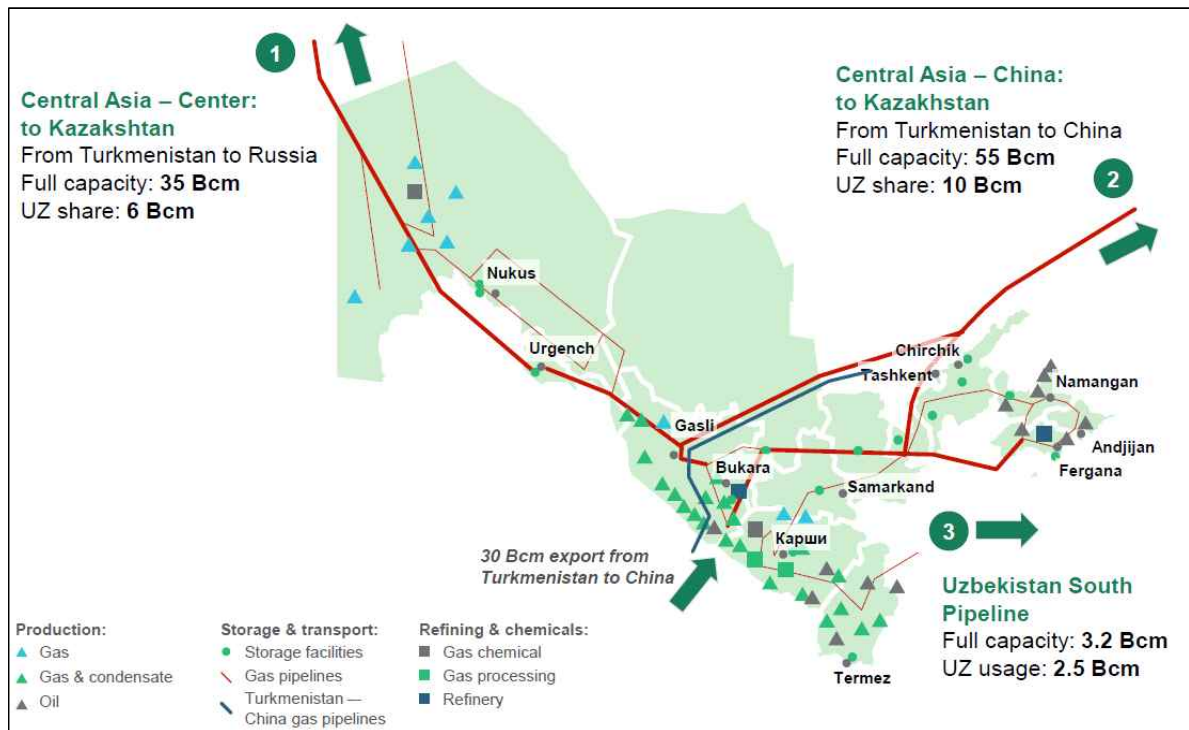
[표 4]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및 금 생산량 추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천연가스 생산량(억 m ³)	536 (24.9) ^{주)}	583 (23.4)	575 (23.0)	471 (25.9)	509 (28.9)
금 생산량(톤)	91.1 (1.5)	91.6 (1.5)	93.2 (1.5)	100.2 (1.2)	104.9 (1.3)

주) 전 세계 생산량 대비 비중(%)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성장잠재력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대 러시아 및 대 중국 가스관



자료: www.energycharter.org

정책성과

ICT 산업 부문의 정책 추진 성과 가시화

- 우즈베키스탄의 ICT 산업은 최근 전자정부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 분야의 성과가 상당하여 UN의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E-Government Survey 국가별 순위가 2003년 174위에서 2008년 109위, 2022년 69위로 크게 상승함.
-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T 부문 발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 기술파크(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와 공동으로 2019년 7월 수도 타슈켄트에 IT 파크를 설립하였음.
- 동 IT 파크는 입주기업 세제 혜택과 IT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며, 2020년 기준 타슈켄트 IT 파크에 355개 기업이 입주하여 4천여 명의 기술 인력이 근무 중임.
- 우즈베키스탄 경제연구개혁센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2016~20년 중 ICT 서비스 부가가치 2배 증가, ICT 분야 투자 4배 증가, 이동통신 가입자 20% 증가 등 디지털 전환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됨.

풍부한 면화 생산을 기반으로 한 섬유산업 육성 정책 추진

- 섬유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우즈베키스탄은 인도, 미국, 파키스탄, 터키에 이어 세계 5위의 면화 및 면직물 수출국임. 면화 및 면직물은 2022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액의 17.9%(27.5억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이며, 중국, 터키, 러시아 등으로 수출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21 산업구조 개혁, 현대화, 다각화 추진 계획'을 통해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의 육성 정책을 수립, 기존의 원면 위주의 수출 전략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제품 위주의 수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부터 목화 생산·판매의 지자체별 목표 할당제를 폐지하고, 2020년 6월에는 가공하지 않은 원면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국내에서 가공 처리 후 중간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수출을 장려함.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섬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에 '2020~24년 섬유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동 전략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24년 기간 동안 섬유 부문의 생산량을 4.6배 늘리고 2025년까지 섬유제품 수출액을 70억 달러까지 늘리는 목표를 추진 중임. 섬유제품 수출액은 2011년 6억 6,000만 달러, 2016년 11억 달러, 2022년 27.5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정책성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2030 녹색경제 전환 전략' 추진

-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의 지원으로 2023~26년 중 3.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나보이 주에 아랍에미리트의 MASDAR Clean Energy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지작 주, 사마르칸드 주 및 수르한다리야 주에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이후 부하라 주, 나망간 주, 호레즘 주 등에도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표 5] 우즈베키스탄의 연도별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연도	주요 내용
2023년	○ 총 1.1GW 규모의 4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나보이 주, 지작 주, 사마르칸드 주, 수르한다리야 주)
2024년	○ 총 0.9GW 규모의 5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부하라 주, 나망간 주, 호레즘 주, 카슈카다리야 주, 페르가나 주)
2025~26년	○ 총 1.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 풍력발전은 아랍에미리트 기업이 나보이 주에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2023~26년까지 총 4.0GW 규모의 풍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임.
- 2020년 6월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력망공사와MASDAR Clean Energy사 간에 2024년 나보이 주에 5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 계약(6억 달러)이 체결되었으며, 동년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ACWA Power사 간에 나보이 및 부하라에 1,0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2곳을 건설하는 계약(13억 달러)이 체결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 10월 대통령령으로 '2019~30 녹색경제 전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에 가입하였고 2018년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였으며, 2019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의 10%로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 녹색경제 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발전원별 전력 생산비중을 2019년 화력(85.9%) 및 수력(14.1%)에서 2030년에는 화력(51.5%), 태양광(17.1%), 수력(13.0%), 풍력(10.2%), 원자력(8.2%)로 다변화할 계획임.

정치동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선에 성공, 안정적 통치 기반 구축

-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은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2016년 12월 대선에서 8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2021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
-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관위는 개표 결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80.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함.
- 한편, 2023년 4월 30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장 2040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2기에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 외에 사회분야 개혁도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2017~21년 발전전략'의 중점 목표에는 '민주주의 확대', '법치 보장 및 사법 제도 개혁' 등이 포함되었으며, 정치개혁을 통해 다당제 확립, 부패 척결 등이 추진되었고,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의 해임 등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음.
- 2020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의원, 공무원, 안보기관 직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였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1기에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외국법인 토지 사유화', '외국기업 경영권 100% 인정', '기업활동 수익의 해외 반출 허용'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 우즈베키스탄의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8.1('14) → 10.4('14) → 16.6('16) → 18.0('17) → 6.3('18) → 23.2('19) → 17.3('20) → 20.4('21)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2기에는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시민사회 건설', '공정한 사회정책 및 인재육성'을 포함하는 사회 분야 개혁도 적극 추진 중임.

2020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

-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 중의 하나로 선출되어, 3년 임기 동안 유엔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음.
- 한편, 국제인권위원회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우즈베키스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 승인 등 보다 획기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대표적인 인권 상황 개선 사례는 정부의 면화농장 강제노동 폐지, 일부 반정부 인사들의 석방 등이며, 개인이나 조직의 공개적인 반정부 활동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음.

사회동향

사회 전반의 부패 해소 및 언론 자유 증진 등의 성과는 미흡

-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2016년 집권 이후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언론 자유 부문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80개국 중 2021년 140위, 2022년 126위에 머무는 등 사회 전반의 부패 인식 수준이 낮은 편임. 2023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37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음.

높은 청년실업률은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

- 국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최근 실업률이 상승 추세이며 2020년 5.3%, 2022년 6.0%를 기록함. 특히 15~24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2022년 13.8%로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잠재적 사회불안 요인임. 이는 주변국(카자흐스탄 3.8%, 키르기즈 8.9%) 대비 크게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1월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청년 기업가 지원, 청년 대상 직업교육 강화 등을 지시하였고, 동년 5월부터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청년 창업가 대상 사무실 임대료 30%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함.

[표 6 우즈베키스탄의 실업률 추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실업률(%)	5.9	5.9	5.3	6.0	6.0
청년 실업률(%)	13.6	13.4	12.8	13.6	13.8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Credit Impact Score)를 전체적으로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함.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분류함.
- (환경) 에너지 산업 위주에서 의류, 농산물 등으로 수출상품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수자원 부족 및 오염, 토양의 염분 농도 상승 등이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 및 섬유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Environment) 영향을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 (사회) 인구 구조 등은 긍정적이거나, 교육, 주택, 보건 등의 사회 인프라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Social) 영향을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 부정부패, 일관성 없는 법 집행 등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함.

국제관계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구소련 지역의 경제통합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옵저버로 가입(2020.5월)하여 러시아 및 관련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등 5개국 정치·경제·군사·문화 협의체
- 카리모프 전 대통령과 달리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은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EAEU 정식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회원 가입을 통해 에너지, 자동차, 섬유,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등 EAEU 회원국들과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EAEU 가입을 통해 러시아 등 회원국들과 비관세 교역을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노동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
- 최근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함.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여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음.
 - *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9개국 정치·경제·안보 협의체
- 2022년 기준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11.5%, 수입의 22.4%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으로, 2022년 중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액(925백만 달러)의 91.7%가 대 중국 수출임.
- 이외에도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이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였고, 중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등 제조업 분야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WTO 가입 추진 등 서방과의 협력 도모

- 우즈베키스탄은 WTO 설립이 추진되던 1994년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2005년에 가입 협상을 중단하였고, 2016년 미르지요예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개방·개혁 정책에 따라 가입 협상을 재개하였음.
- 2005년까지 WTO 가입을 위한 작업반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뒤 경제개혁이 지체되면서 협상이 중단되었고, 2018년 가입 협상 재개 후 2020년 7월 15년 만에 제4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음. 한국, EU, 미국 등이 검역 조치, 무역장벽, 지적재산권 등 WTO 가입 조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12월 국제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관 절차 단순화 및 조화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에 가입하였음. 2023년 3월에는 제6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음.
- 2021년 1월에는 미국,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투자 파트너십(Central Asia Investment Partnership)'을 개시하였고, 동년 11월에는 터키 주도의 튀르크어사용국기구(OTS)*에도 참여함.
 - * 튀르키예,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정치·경제 협력체
- 동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간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 및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해 총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합의하였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

- 2022년 9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인수승인 잔액은 총 39억 2,780만 달러 (중장기 37억 1,930만 달러, 단기 2억 850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60만 달러(단기)로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연체비율: 0.03%(‘19.9월) → 0.01%(‘20.9월) → 0.02%(‘21.9월) → 0.01%(‘22.9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3.1)	5등급(2022.1)
Moody's	Ba3 (2023.1)	B1 (2021.7)
Fitch	BB- (2023.3)	BB- (2022.9)

국제신용평가사3사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

- 국제신용평가사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사이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기존의 등급을 유지(Fitch)하거나 소폭 상향(Moody's) 조정함.
- Moody's는 2023년 1월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여 B1에서 B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상품수출 기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ODA 지원 수혜 등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이후 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 성장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소비 및 투자 회복과 기저 효과 등으로 7.4%의 성장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5.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6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함.
-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 차입 등으로 외채 규모가 증가하여 최근 D.S.R. 등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다소 저하되었음. 다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금 보유액 증가로 대외준비자산 규모는 2021년 말 351.4억 달러에서 2022년 말 358.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 천연가스, 면화 등 1차상품 위주의 경제구조 탈피 및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고부가 섬유제품,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1년 10월 80%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23년 4월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확보함.